소공동체 모임순서 (복음나누기 7단계)

+ 성호경
+ 이달의 시작 성가 (403장)
+ 출석확인과 인사 나눔
+ 소공동체 기도문
+ 복음 나누기 7단계 (이달의 복음: 마태 16,13-20)

1단계 : 주님을 초대한다.
- 한 두 분이 기도로 예수님을 초대해 주십시오.

2단계 : 성경 본문을 2번 읽는다.
- ....복음 ....장을 펴주십시오.(참가자들이 본문을 찾을 때까지 기다린 후)
- 어느 분이 ...장 ...절에서 ...절까지 천천히 읽어주십시오.
-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읽어 주십시오.
- 각자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구절을 새기며 고요히 되뇝니다.

3단계 : 성경 본문 중에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구절을 외친다.
- 각자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짧은 구절을 세 번씩 외쳐주십시오.
- 어느 분이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4단계 :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는다.
-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듣도록 합시다.

5단계 : 각자의 마음속에 들려주신 말씀을 나눈다.
- 순서 없이 자유롭게 각자의 마음속에 들려주신 주님의 말씀을 나눕시다.

※ 나누기가 끝난 후 "함께하는 복음 묵상"을 읽는다.

6단계 : 무엇을 해야 할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누고, 실천을 다짐한다.
- 지난 달에 공동체(각자)가 정했던 실천 사항을 어떻게 실천했는지 나누어 봅니다.
- 이번 달에는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각자)에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보고, 실천할 수 있는 것을 정합시다.

※'5분 신앙상식'을 공부하고, 공지사항, 건의사항, 차기장소 결정을 한다.

7단계 : 자유롭게 기도한다. (손을 잡고~)
-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합시다.

+ 소공동체가
+ 영광송 및 성호경

진행자가 기억해야 할 사항

① 복음나누기 7단계에 제시된 그대로("한 두 분이...") 각 단계를 읽어주십시오.
② 참가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가급적 하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 3단계, 5단계에서는 진행자도 할 수 있으나, 첫 발언자가 되지 말고 다른 사람이 먼저 발언하게 하십시오.
③ 마지막 발표자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발언하게 되면 진행자가 마치 정답을 주는 사람으로 여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④ 참가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격려하십시오.
⑤ 각 단계에서는 참가자들의 참여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느긋하게 기다리십시오.

함께하는 복음 묵상

마태 16,13-20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베드로 사도의 고백은 참으로 장엄한 고백입니다. 지금까지 그 누구도 드러내 놓고 하지 않았던 말이 베드로 사도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들 하더냐?" 많은 이들은 자신의 생각을 말하기 보다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 어디선가 들은 것을 주님 앞에 내어 놓습니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나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제자들의 이 대답에서 우리는 때로 미숙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남이 하는 생각, 남이 하는 묵상, 남이 하는 활동, 남이 하는 기도를 가지고 우리는 지금껏 신앙생활이라고 하며 따라오지 않았는지 성찰해야 합니다. 많은 이들이 다른 이들의 생각이나 노력에 편하게 따라가며 안주하려 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우리의 생각도 삶도 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주님께서는 다시금 물으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에서 우리는 주님의 따뜻한 마음을 봅니다. 그분께서는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의견을 구구절절 늘어놓는 것에 실망하시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 우리 각자가 다른 이의 생각이나 그들이 이루어 놓은 것에만 안주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분이 누구이신지 깨달아야 함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기에 베드로 사도의 고백이 이어집니다.

"스승님을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야말로 누구의 강요도 받지 않은 베드로 사도 자신의 고백이었습니다.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고백을 흡족하게 들으시고 베드로 사도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내어 주십니다. 오늘도 그분은 우리에게 묻고 계실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은 그분께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수원교구 8월 소공동체지에서 발췌)

공지사항

※ 이 달부터 '말씀이 우리와 함께'를 새롭게 시작합니다. 이 과정은 소공동체 모임에서 매달 정해진 성경 구절을 같이 읽고 그 내용에 해당하는 성경 문제에 답을 하는 형식으로, 좀 더 하느님의 말씀에 가까이 가는 우리가 되기 위한 노력의 시작입니다. 꾸준히 성경을 읽고 하느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씨앗을 내 마음 구석구석에 뿌려 좋은 열매 맺겠다는 열린 마음으로 적극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 8월 31일(수)부터 루카복음과 사도행전으로 성경공부가 시작됩니다. 성경을 깊이 공부하고 묵상하고 싶은 분들은 오전10시와 오후 7시30분에 시작하는 여정 성경공부 반에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와 함께’

◈ 이 달에 읽을 말씀: 창세기 **1,1-3,24**

◈ 성경 퀴즈

***창세기 1,1-2,4 까지 읽고 ( ) 안에 알맞은 낱말을 써 넣으시오.**

1. 한처음에 ( )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2. 하느님께서 보시니 ( ).

3. 하느님께서 이들에게 ( )을 내리며 말씀하셨다. “번식하고 번성하여 바닷물을 가득 채워라. 새들도 땅 위에서 ( )하여라.

4.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 )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5. 하느님께서 이렛날에 ( )을 내리시고 그날을 ( )하게 하셨다.

***창세기 2,5-3,24 까지 읽고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6. 사람을 빚기 위하여 하느님께서 쓰신 재료는 무엇인가?

7. 사람이 생명체가 되기 위해 하느님께서 불어넣으신 것은 무엇인가?

8. 하느님께서 들의 온갖 짐승과 하늘의 온갖 새들에게 어떻게 이름을 지어 주셨는가?

9. 다음에 알맞은 단어를 써 넣으시오.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 ) 아내와 ( ), 둘이 한 몸이 된다.

10. 에덴동산 한 가운데에 위치한 나무의 이름은 무엇인가?

11. 간교한 뱀이 여자를 꾀이며 단언했던 말은 무엇이었는가?

12. 사람이 자기 아내에게 지어준 이름은 무엇인가?

13. 창세기 3,19의 말씀을 읽고 이에 연관되는 사순절의 시작을 알리는 교회력의 절기를 답하시오.

14. 창세기 3장19절, 욥기 2장8절, 요나서 3장6절, 마태 11장21절을 읽고 공통되는 ‘재’의 의미를 찾아보시오.

***도전 문제**

구약 성경의 첫 권은 ‘창세기’입니다. 모세오경의 첫 번째 책이기도 한 이 책의 ‘창세기’라는 제목은 어떤 유래로 지어진 것일까요?

◈ 말씀과 생활 나누기

창세기 1장 3절에서 하느님이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참 좋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생활 중에서 하느님이 보시기 좋다고 하실 만한 것은 무엇이며, 또 좋게 보실 수 없는 부분은 무엇일까 생각해보고 짧게 나누어 봅시다.

소공동체 기도문

○ 하느님 아버지,
저희를 불러모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저희가 모였사오니 여기 모인 모든 이들과 이 가정에 강복하여 주십시오.

● 주님, 저희는 오늘 소공동체 모임에 모여 열심히 기도하고 부지런히 공부하며 이웃 사랑을 실천하려 합니다.

○ 주님께 청하오니 저희와 함께 하시어 엠마오 제자들에게 하신 것같이 저희에게도 이루어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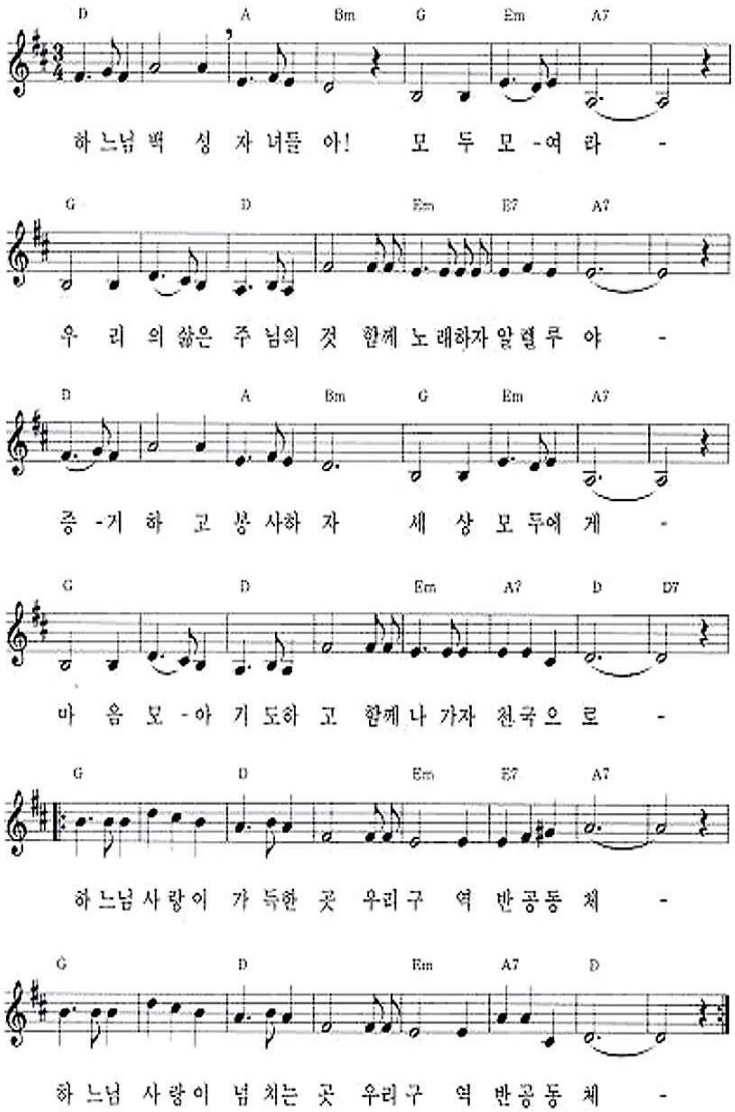
● 당신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빵을 나누듯이 나눔의 생활을 할 때마다 저희의 영적 눈이 밝아져 저희와 함께 계신 주님을 알아 뵙게 하여 주십시오.

○ 문을 닫아걸고 무력함과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 주신 주님, 저희에게도 성령을 보내 주시어 기쁨과 확신에 넘쳐 주님을 전파하며 주님을 위하여 고통을 받는 것도 기쁨으로 알게 하여 주십시오.

● 그리하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느님께 영광과 찬미를 드리며 이웃 사랑을 실천하여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소공동체가

작사 현 정 수
작곡 현 정 수

기도하며...